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01월22일  
 (11) 등록번호 10-1353497  
 (24) 등록일자 2014년01월1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G 9/1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86311  
 (22) 출원일자 2012년08월07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8월0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1056561 A  
 JP2005021638 A  
 JP2005224555 A  
 KR1019990069290 A

(73) 특허권자  
 서채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89, 106동 706호 (지묘동, 팔공보성타운)  
 (72) 발명자  
 서채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89, 106동 706호 (지묘동, 팔공보성타운)  
 (74) 대리인  
 최경수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김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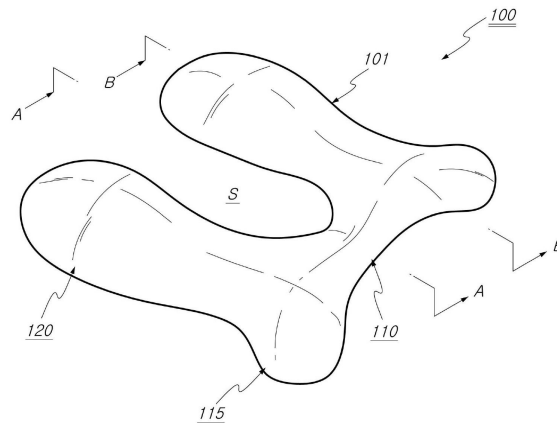
(54) 발명의 명칭 **베개**

**(57) 요약**

본 발명은 이용자가 가장 편안하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형상으로 가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숙면을 취하도록 함과 아울러, 경추를 바르게 유지하여 신체적인 교정기능과 더불어 변형으로 인한 이상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베개에 관한 것으로서;

외피의 내부에 베갯속을 채워 C 형상으로 구비하는 베개바디와, 상기 베개바디는 이용자의 목부위와 연결되어 목부위를 지지하면서 바른 경추자세를 유지하는 목연접부와, 상기 목연접부의 양측으로 일체로 돌출시켜 이용자의 귀밑부위에서 어깨언저리까지 형성되는 빈공간 지지하는 어깨지지부와, 상기 어깨지지부의 상측으로 일체로 돌출시켜 이용자의 머리 배면부 양측면에서 배면 사이를 지지하는 머리지지부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피의 내부에 베갯속을 채워 ㄷ 형상으로 구비하는 베개바디와;

상기 베개바디는 이용자의 목부위와 연접되어 목부위를 지지하면서 바른 경추자세를 유지하는 목연접부와;

상기 목연접부의 양측으로 일체로 돌출시켜 이용자의 귀밑부위에서 어깨언저리까지 형성되는 빈공간 지지하는 어깨지지부와;

상기 어깨지지부의 상측으로 일체로 돌출시켜 이용자의 머리 배면부 양측면에서 배면 사이를 지지하는 머리지지부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베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연접부는 이용자가 바른 자세로 누웠을 때 경추가 정상적인 만곡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와 곡률을 가지도록 하고;

상기 어깨지지부는 목연접부의 높이 보다 높게 하여 이용자의 귀밑부위와 어깨언저리 사이의 공간을 채워 신체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상기 머리지지부는 어깨지지부의 높이보다 높게 형성하여 이용자의 머리가 경추가 이루는 만곡상태 보다 그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머리지지부 사이에는 이용자의 머리 배면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부를 형성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베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베개바디의 저면에는 목연접부와 어깨지지부 및 머리지지부가 쉽게 형상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베개를 다른 형상으로 가변시키고 가변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상유지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형상유지수단은 외피와 착탈수단에 의하여 탈부착되는 베이스와;

상기 베이스의 내면 또는 베이스로 마감되는 외피의 저면에 심재를 착탈가능하게 구비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베개.

**명세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베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ㄷ 형상으로 구성하여 신체를 지지하는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정상적인 척추만곡 상태를 유지하여 신체적인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여 수면과정에서 자세교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로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베개의 제공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사람은 매일 일정시간(통상 하루의 1/3정도) 동안 야간에 수면을 취하여 낮 시간동안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인 피로와 신체적인 피로를 해소하여 재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 수면시간보다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피로해소와 에너지 충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0003] 상기와 같이 수면을 취할 때에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 부위에 베개를 받쳐서 사용하게 되는 데, 전통적인 베개는 내피의 내부에 쿠션을 유지하면서 ㄷ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베갯속을 내장하고, 상기 내피의 외부에는 신체와 접촉하는 외피로 마감하는 구성이며, 베갯속에는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능성 약제 등을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0004] 베개를 베고 수면을 취하는 과정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여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수면자의 머리와 목의 상태(자세)를 바르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따라 숙면을 취하든지 아니면 선잠을 취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종래의 전통적인 베개는 원통 형상으로 구성되고 원통의 직경이 등과 머리 사이에 위치한 목 부위의 저면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베개를 사용할 때 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들려지고 머리는 목의 뒤 방향으로 꺾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0006]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을 때 머리의 무게로 인하여 목이 꺾이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목은 물론 어깨근육과 관절에까지 영향을 미쳐 피로가 쉬 가지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0007] 근자에 들어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베개의 높이를 낮추면서 다양한 형상을 가지면서도 재질 또는 경질에서 벗어나 솜이나 스펀지 또는 우레탄 폼 및 라텍스 등 다양한 재질로 구성된 베개들이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0008] 이러한 베개들도 사용 초기에는 목을 안정되게 받쳐주고 머리부위도 목으로부터 꺾여지는 현상이 없는듯하나, 쿠션재가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제 역할을 수행하기 못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이용자의 신체와 적합하였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높이가 낮아지거나 형상이 변형되어 불편한 상태로 변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0009] 이와 같이 베개의 높이가 초기에는 최적의 상태로 결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높이가 낮아지게 되므로 이용자의 신체와 접촉(긴밀한 상태의 밀착을 유지하는)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숙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수면을 취하고 일어날 경우 목과 어깨부위의 근육이 경직되거나 비틀리는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0010] 상기와 같이 종래 기술이 적용되는 전통베개와 개선된 베개를 이용하여 수면을 취할 때 신체적인 이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는, 베개의 높이가 높거나 베개가 순수하게 목만 받쳐주는 형태를 유지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하고 장기간동안 반복되기 때문이다.

[0011] 경추가 이루는 반경과 흉추가 이루는 반경 및 요추가 이루는 반경에 대하여 경추와 흉추 및 요추의 시작과 끝 지점을 반경의 중심과 연결하였을 때 그 각도가 60° 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척추만곡이라 할 수 있으나, 베개에 의하여 목부위만 받쳐진 상태에서 무거운 머리가 젖혀지면서 경추가 심하게 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0012] 또한 베개에 의하여 목 부위만 받치게 되므로 어깨부위가 들뜬 상태가 되는 것은 물론, 경추와 흉추를 연결하는 부위가 정상적인 만곡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므로 결국에는 전체 척추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척추를 통하여 연결되는 신경의 이상으로 신체의 일부가 저리거나 마비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

[0013] 신체에 적합하지 않은 베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누운 상태가 아닌 옆으로 누운 상태로 수면을 취할 경우에도 척추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하중이 척추로 전달되어 무리가 발생하고, 혈액순환의 방해와 더불어 근육이 뒤틀리는 현상으로 인한 신체의 비대칭현상이 일어난다.

[0014] 이와 같이 종래 기술이 적용되는 베개는 단순하게 목부위만 받쳐주는 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척추의 이상과 근육의 뭉침 현상 및 관절의 이상을 초래하여 숙면을 취하는 것을 어렵게 함과 아울러 신체의 이상과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5] 이에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외피의 내부에 베갯속을 채워 C 형상으로 구비하는 베개바디와, 상기 베개바디는 이용자의 목부위와 연결되어 목부위를 지지하면서 바른 경추자세를 유지하는 목연접부와, 상기 목연접부의 양측으로 일체로 돌출시켜 이용자의 귀밑부위에서 어깨언저리까지 형성되는 빈공간 지지하는 어깨지지부와, 상기 어깨지지부의 상측으로 일체로 돌출시켜 이용자의 머리 배

면부 양측면에서 배면 사이를 지지하는 머리지지부로 구성하여;

[0016] 이용자가 가장 편안하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형상으로 가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숙면을 취하도록 함과 아울러, 경추를 바르게 유지하여 신체의 교정기능과 더불어 변형으로 인한 이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0017] 본 발명은 ㄷ 형상으로 베개를 구성하여 무거운 머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목을 구성하는 경추가 정상적인 만곡을 유지하여 척추 전체가 안정된 만곡 형태를 유지하여 척추의 변형과 이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0018] 특히, 이용자의 귀에서 어깨 사이에 노출되는 빈공간을 채워 안정되게 지지하여 중력에 의한 안정감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로를 쉽게 풀리게 하고, 수면을 통하여 바른 자세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 발명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9] 도 1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를 도시한 외관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를 도시한 A - A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를 도시한 B - B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의 1사용 예를 도시한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의 2사용 예를 도시한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의 3사용 예를 도시한 구성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0] 이하 첨부되는 도면과 관련하여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성과 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0021] 도 1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를 도시한 외관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를 도시한 A - A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를 도시한 B - B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의 1사용 예를 도시한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의 2사용 예를 도시한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의 3사용 예를 도시한 구성도로서 함께 설명한다.

[0022]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되는 베개(100)는, ㄷ 형상으로 베개바디(101)를 구비하고, 상기 베개바디(101)는 가죽, 섬유(직물)와 같은 재질의 외피(102) 내부에 베갯속(103)을 내장하여 이용자의 목과 머리 및 어깨부위를 안정되게 받쳐줄 수 있도록 한다.

[0023] 상기 베갯속(103)은 스펀지, 플라스틱칩과 같은 합성소재를 채워넣을 수도 있으나 장시간 신체와 접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체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과일씨, 약초, 목재(툽밥이나 목재용 칩), 돌 등과 같은 천연소재를 채워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0024] 상기 베개바디(101)는 이용자(105)의 목부위(106)와 연결되어 목부위(106)를 지지하는 목연접부(110)와, 상기 목연접부(110)의 양측으로 돌출되어 이용자(105)의 귀밑부위(107)에서 어깨언저리(108)까지 형성되는 빈공간 지지하는 어깨지지부(115)를 일체로 형성한다.

[0025] 상기 어깨지지부(115)의 상측(이용자가 누운 상태에서 보았을 때 머리 방향)으로는 이용자(105)의 머리(109) 배면부 양측면에서 배면 사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한 쌍의 머리지지부(120)를 돌출시켜 구성한다.

[0026] 상기 목연접부(110)는 이용자(105)가 바른 자세로 누웠을 때 경추가 정상적인 만곡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H)와 곡률(R)을 가지도록 하고, 상기 어깨지지부(115)의 높이(H1)는 목연접부(110)의 높이(H) 보다 높게 하여 이용자(105)의 귀밑부위(107)와 어깨언저리(108) 사이의 공간을 채워 누웠을 때 중력에 의하여 이용자(105)의 신체가 귀밑부위(107)와 어깨언저리(108) 사이의 공간으로 처지는 현상이 없도록 한다.

- [0027] 상기 머리지지부(120)의 높이(H2)는 어깨지지부(115)의 높이(H1)보다 높게 형성하여 이용자(105)의 머리(109)가 경추가 정상적으로 이루는 만곡상태 보다 중력에 의하여 그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0028] 상기 목연접부(110)와 어깨지지부(115) 및 머리지지부(120)의 연결부위는 각이진 형태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외피(102)를 디자인하고 재단할 때 치수차이를 두고 재봉한 상태에서 베갯속(103)을 채워 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0029] 상기 머리지지부(120) 사이에는 공간부(S)를 형성하여 이용자의 머리(105) 배면이 위치하여 안정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0030] 상기 베개바디(101)의 저면에는 이용자(105)가 베개(100)를 사용할 때 체중에 의하여 목연접부(110)와 어깨지지부(115) 및 머리지지부(120)가 쉽게 형상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베개(100)를 다른 형상으로 가변시켜 사용할 때 가변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상유지수단(125)을 더 구비하도록 한다.
- [0031] 상기 형상유지수단(125)은 외피(102)와 지퍼, 벨크로, 단추 등과 같은 통상적인 착탈수단에 의하여 탈부착되도록 베이스(126)를 구비하고, 상기 베이스(126)의 내면 또는 베이스(126)로 마감되는 외피(102)의 저면에 심재(127)를 고정하여 베개바디(101)의 형상을 자유롭게 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0032] 상기 베이스(126)는 외피(102)와 동일한 재질로 구성하여도 되나, 외피(102)와 다른 경질 또는 쿠션을 가지는 재질로 구성하여 바닥과 밀착성을 높여 베개(100)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베이스(126)에 고정되는 심재(127) 또는 착탈 자유롭도록 구성함은 당연할 것이다.
- [0033]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베개(100)를 이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0034] 바르게 누운 상태로 수면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베개(100)를 구성하는 목연접부(110)의 양측에 어깨지지부(115)가 위치하고, 어깨지지부(115)의 상측으로는 한 쌍의 머리지지부(120)가 돌출되도록 한 상태에서 목연접부(110)에 이용자(105)의 목 뒤쪽이 연접되도록 하고, 이용자(105)의 머리 뒤쪽은 머리지지부(120) 사이의 공간부(S)에 위치하도록 한다.
- [0035] 그러면, 이용자(105)의 목부위(106)는 경추가 형성하는 정상적인 만곡과 동일한 곡률(R)과 높이(H)를 가지는 목연접부(110)와 연접되어 안정되게 지지되고, 이용자(105) 머리도 머리지지부(120)가 형성하는 공간부(S)에 위치하여 목부위(106)보다 무게(중력)에 의하여 더 꺾여(젓혀)지는 현상이 없게 된다.
- [0036] 그리고, 이용자(105)의 귀밑부위(107)와 어깨언저리(108)에 걸쳐 형성되는 빈공간은 목연접부(110) 양측에 일체로 형성되는 어깨지지부(115)가 채우면서 받쳐주기 때문에 이용자(105)의 목부위(106)와 머리(109) 및 어깨언저리(108)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0037] 이와 같이 중력에 의하여 이용자(105)의 신체가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되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수면이 끝난 상태에서도 신체 중 어느 한 부분에 무리가 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비틀리거나 뭉치는 현상, 경추의 비 이상적인 변형, 머리부위의 젓혀짐 현상, 어깨부위가 놀리거나 변형되는 현상이 없어 어느 한 부위가 아프거나 걸리는 등의 이상현상이 없게 되는 것이다.
- [0038] 상기와 같이 베개(100)를 이용하여 수면을 취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신체조건(머리의 형상이나 크기)에 따라 머리지지부(120) 사이의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 [0039] 이와 같은 경우 또는, 이용자(105)의 체형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에 맞게 베개(100)를 변형시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베개(100)의 저면에 더 결합 되는 형상유지수단(125)을 구성하는 심재(127)를 원하는 형상으로 움직여 베개(100)의 전체적인 형상을 자유롭게 가변시켜 사용하면 된다.
- [0040] 예를 들어, 어깨부위를 더 견고하게 받쳐준 상태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재(127)를 이용하여 목연접부(110)에 대하여 어깨지지부(115)가 휘어지게 하고 머리지지부(120)의 간격을 더 벌려 베개(100) 전체를 W형상에 가깝게 가변시키도록 한다.
- [0041] 이러한 상태에서 베개(100)의 방향을 반대로 하여 머리지지부(120)가 이용자(105)의 어깨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고, 목부위(106)는 목연접부(110)에 의하여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 되며, 본 발명에서 예시하지 않은 상태의 다른 다양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재(127)를 이용하여 베개(100)의 형상을 가변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 [0042] 또한, 옆으로 누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105)의 얼굴 측면이 어깨지지부(115)에 걸쳐지도록

하고, 얼굴의 전면부는 머리지지부(120)를 향하고, 머리(배면부)는 낮은 어깨지지부(11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를 가지는 목연접부(110)에 위치시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도 쉽게 자세가 변형되거나 흐트러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므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여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043] 그리고, 베개(100)를 세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피(102)로부터 형상유지수단(125)을 분리하고, 형상유지수단(125)의 베이스(126)로부터 심재(127)를 분리하여 세척하고 다시 결합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켜 사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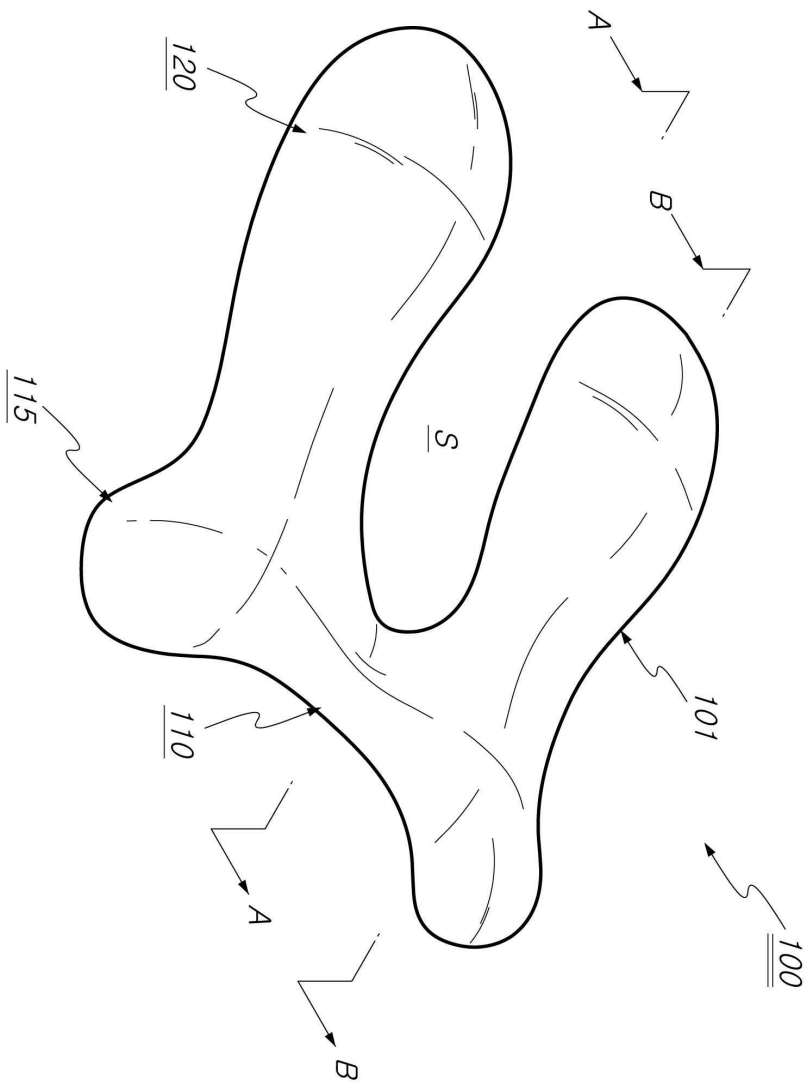
[0044] 이러한 본 발명은 이용자가 가장 편안하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형상으로 가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숙면을 취하도록 함과 아울러, 경추를 바르게 유지하여 신체적인 교정기능과 더불어 변형으로 인한 이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부호의 설명**

- [0045] 100; 베개  
 101; 베개바디  
 102; 외피  
 110; 목연접부  
 115; 어깨지지부  
 120; 머리지지부  
 125; 형상유지수단  
 126; 베이스  
 127; 심재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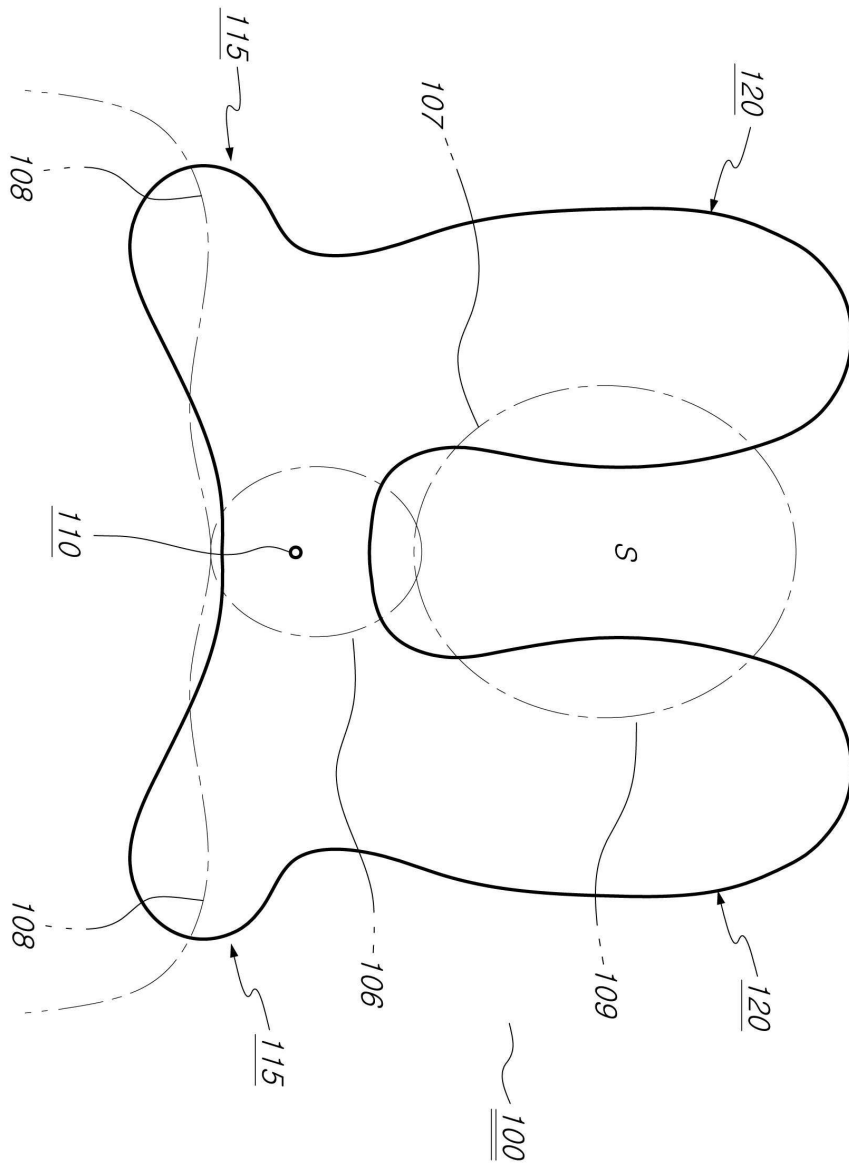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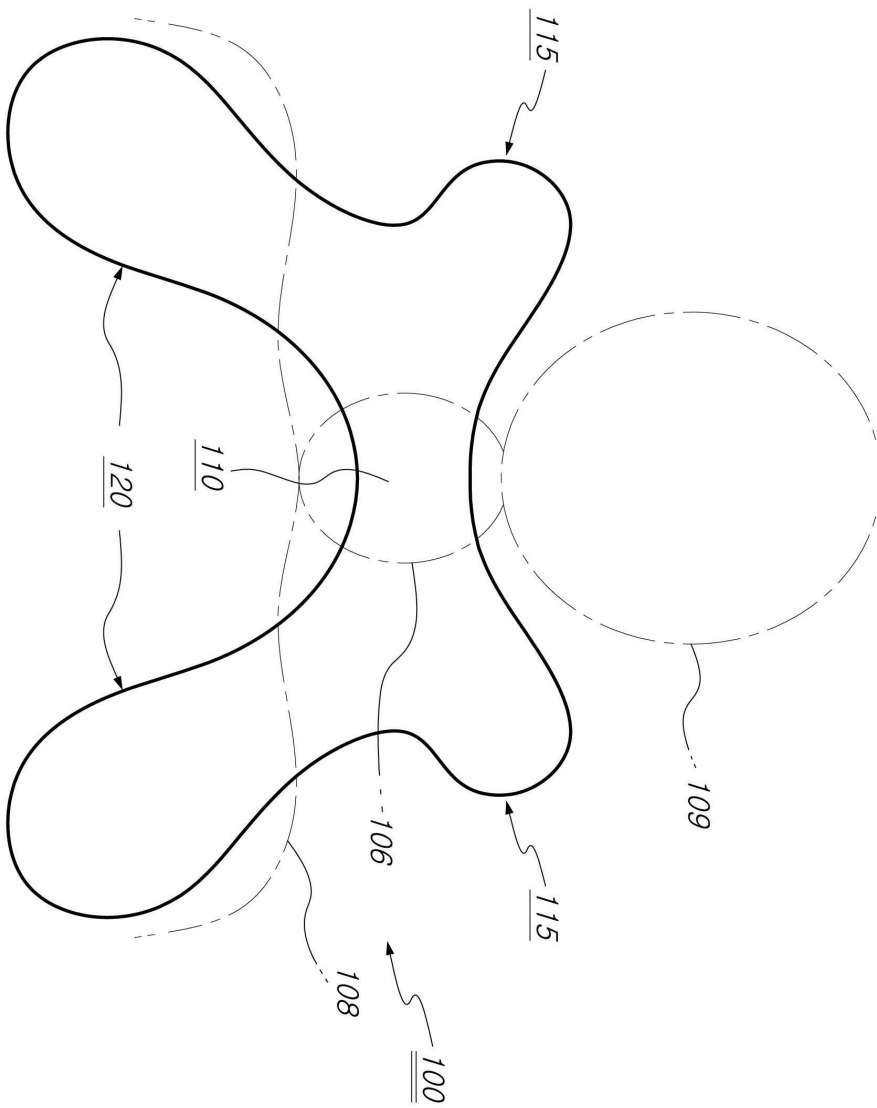




도면4



도면5



도면6

